

횡령사태 '육아센터' 들여다 보니... 총체적 '회계부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참사 '애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4일 오후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의 발달 중증장애인 참사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회계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센터를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보조금 회계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660만원에 이르는 용역계약의 지출 내역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위탁 운영 중인 센터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재정지출 관련 계약에서 내역서 등의 검사조서부터 작성해야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시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난 2020~2021년 보조금 집행관리가 부실한 부분도 적발했다. 센터는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예산 7천519만여원을 카드로 처리하지 않고 14차례에 걸쳐 계좌로 이체했다. 센터

인천시, 보조금 실태조사 결과 부정적인 일처리 무더기 적발 용역계약 지출비 문서 미작성 카드 사용 규칙도 위반 드러나

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의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시는 센터가 사용하지 않는 2개의 계좌를 해지하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시는 이 같은 계좌가 자칫 직원들의 횡령 등의 범죄에 쓰일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는 센터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비로 우선 177만여원을 업체 등에 입금한 뒤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관행에 대해서도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액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면서 비교견적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운영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법인카드 포인트 등의 세외수입 미조치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센터에 지방보조금 관리가 시스템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망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실태조사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세입·세출 처리 현황, 센터 운영 금융계좌 실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및 계약·지출 등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밖에 시는 회계관리시스템, 계좌별 입출금 현황 및 관련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도 확인했다.

시는 "최근 부평구 센터에서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한 만큼, 시 센터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 이재호 연구구청장 선출

“10개 군·구 상생·지방자치 발전 위해 앞장”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이재호 연구구청장이 올랐다. 이 구청장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인천의 민선 8기 군수·구청장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현안을 조율하고 풀어나갈 계획이다.

4일 연구구 등에 따르면 인천의 민선 8기 군수·구청장들은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열고 이 구청장을 전반기 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합의 추대했다. 또 이 구청장과 함께 활동할 총무로 박종호 남동구청장을 선출했다.

이 구청장의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임기는 오는 2024년 6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하며 전국 지자체의 공동 현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과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구청장들이 운영하는 단체다. 그동안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매월



정례회의 등을 열고 주요 현안사항 등을 논의해왔다.

이 구청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인천의 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천시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 구축은 물론, 인천 10개 군·구의 상생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선관위, 9월7일 '고등학생 토론회' 개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7일 '제12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인천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고등학교의 교장으로부터 학생 2

인으로 구성된 1팀씩 추천을 받는다. 인천선관위는 이번 토론회가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토론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올바른 토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팀은 오는 11월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여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고등학생부) 전국 예선'에 인천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을 얻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선관위와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언론인클럽이 후원한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5개 상임위 구성... 위원장 선출 완료

'열린의회' 진용 마무리... 민생속으로

제9대 인천시의회가 5개 상임위원회의 전반기 구성을 끝내고 이를 이끌 상임위원장들을 모두 선출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를 구성했다. 또 신동섭 행안위원장(국힘·남동4), 김종득 문복위원장(민주·계양2), 정해권 산업위원장(국힘·연수1), 임관만 건교위원장(국힘·중구1), 신충식 교육위원장(국힘·서구4) 등 상임위원장 5명을 뽑았다.

행안위는 신동섭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국힘·중구2), 김재동(국힘·미추홀1), 김용희(국힘·연수2), 이단비(국힘·부평3), 석정규(민주·계양3), 신영

행안위원장	문복위원장	산업위원장	건교위원장	교육위원장	비례
					등 시의원 8명으로 구성했다. 건교위는 임관만 위원장과 김중배(국힘·미추홀4), 유승분(국힘·연수3), 이인교(국힘·남동6), 박종혁(민주·부평6), 조성환(민주·계양1), 이용창(국힘·서구2), 김명주(민주·서구6) 등 시의원 8명이 이끈다. 교육위는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한 이봉락(국힘·미추홀3), 조현영(국힘·연수4), 임춘원(국힘·남동1), 이오상(민주·남동3), 임지훈(민주·부평5), 정종혁(민주·서구1) 등 시의원 7명이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신동섭	김종득	정해권	임관만	신충식	

회(국힘·옹진), 김대영(민주·비례) 등 시의원 8명으로 구성을 마무리했다. 문복위는 김종득 위원장과 함께 이강구(국힘·연수5), 이선욱(국힘·남동2), 한민수(국힘·남동5), 유경희(민주·부평2), 김유곤(국힘·서구3), 박관순(국힘·비례), 장성숙(민주·비례) 등 시의원 8명이 맡는다. 산업위는 정해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대중(국힘·미추홀2), 이명규(국힘·부평1), 나상길(민주·부평4), 문세종(민주·계양4), 이순학(민주·서구5), 박용철(국힘·강화), 박창호(국힘·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의정부시